

해남 국립에코식물원 유치 잔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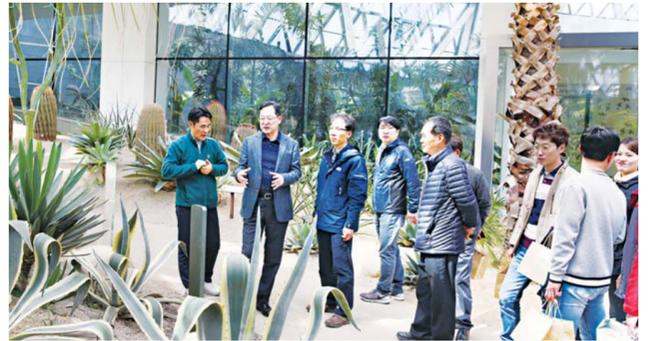
타당성·입지여건 분석 등 대응전략 마련
산림청 2025년까지 난·열대식물원 조성

해남군이 국립에코식물원 유치를 위한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산림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4일과 5일 서울식물원과 아침고요수목원 등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에코식물원 해남유치 전략을 모색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식물원

은 도심공원내 식물원으로 세계의 자연을 담은 서울 최초의 보타닉 공원을 지향하고 있다. 서울식물원은 오는 5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지중해와 열대기후의 환경을 바탕으로 한 세계 12개 도시의 식물을 식재한 유리온실을 갖추고 있다. 1994년 경기도 가평에 개원한 아침고

요수목원은 33만㎡의 넓은 부지에 22개의 특색있는 주제공원, 약 5,000여종의 식물이 식재된 국내 최대 수목원으로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달 열린 '김영록 도지사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립에코식물원의 해남유치에 대한 건의와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군은 이번 견학을 포함해 식물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실시, 식물원 유치에 대한 타당성과 입지여건 분석 등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한반도 아열대화의 관문이자 대규모 유휴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해남이 국립에코난대식물원 입지의 최적임을 홍보하는 한편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민관의 의지를 모아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난대 식물의 자생이 가능하고 땅끝이라는 입지적 조건이 무척 우수하다"며 "다시군과 차별화된 식물원 조성 계획을 마련해 국립에코식물원 해남 유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5일 군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을 방문했다. /해남군 제공

한편, 국립에코난대식물원 조성사업은 연구기반과 생태관광 기능을 갖춘 난대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오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난·열대 식물종 보존 및 정원 예정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영암군 미암면은 최근 오미재에서 제28회 오미령 토지신제를 봉행했다. /영암군 제공

영암 제28회 오미령 토지신제 봉행

주민 건강·안녕 기원

영암군 미암면은 최근 전통평 군수와 조정기 군의회 의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암면의 관문인 오미재에서 제28회 오미령 토지신제를 봉행했다.

오미령은 미암면 선황산 기슭에 자리잡은 고개로 오미재를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 지난 1991년부터 오미령 토지신에게 제를 봉행해 오고 있다. 올해 28회를 맞은 오미령 토지신제는 미암면방범대 주관으로 제례가 준비

됐으며 초현관 민경송면장, 아현관 조정기 군의장, 중현관에는 최성식 이장단장 등이 토지신에게 제를 봉행했다. 민경송 면장은 "오미령 토지신제 봉행을 계기로 미암면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국비 확보 동분서주

중앙·국회 방문 지원 건의

완도군은 최근 신우철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신우철 군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

품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설치와 관광 융합형 농산물 판매장 건립을 건의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 정동영 의원, 정세균 의원 등을 만나 지난해 해양치유센터 실시 설계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갈

건립 공사비를 요청했다. 또한 완도~고흥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과 노화~구도간 연도교 건설 사업 완료에 따른 실질적 연도 사업 효과를 위해 2차 구간인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밖에 해조류 자원을 활용한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 승인과기반 조성비 지원, 해조류 R&D 사업 필요성도 건의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강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 확보

농식품부 공모 선정...웰빙 농산물 기반 활성화 기대

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예산 70억원을 확보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추진한 이번 사업에는 전국 60여 지자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웰빙농산물을 기반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2022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해 웰에이징 산업기반 확충과 상품개발,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 군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1기 농촌신활력사업 성과를 계승,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강진군은 농식품부 현장평가에서 강진만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

정원조성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욱 군수는 TF팀을 구성해 부서 간 사업 전략을 세웠으며 이개호 장관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성공적인 공모사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군수는 "강진의 친환경 웰빙농산물이 웰빙을 넘어 웰에이징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목포 전국 최초 맛의 도시 선포

오는 12일 서울서 행사... '맛' 브랜드 선정

목포시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국내 유명셰프와 관광업계 관계자를 초청,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을 개최한다. 목포시는 목포 식재료와 음식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맛'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맛의 도시를 선포할 계획이다. 목포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리적 위치 덕분에 신선하고 맛있는 식재료들이 풍부하다. 서남해 청정바다와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 비옥한 농토에서 자란 농수산물에 신선한 손맛이 더해져 '게미진' 목포음식이 된다. 최근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가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하고 있는 가운데 개통을 앞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함께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목포의 맛을 브랜드화하고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지난해 맛의 도시 전담팀을 신설하고 특별자문단을 구



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종합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대표 음식개발 및 상품화방안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추진해 왔다. 또 목포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오피뎀 맛집' 100곳 선정, 맛의 거리 조성, 세계가 인정한 미술관 셰프 목포탐방과 이들의 신메뉴 개발, 부담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단품메뉴 공모·선정 등을 진행했다. 시는 맛의 도시 선포식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맛' 하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목포를 떠올리도록 만들어 갈 계획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진도 친환경 범씨 소득 연시회 벼 키다리·도열병 등 사전 예방

진도군은 최근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범씨 소득 연시회를 개최했다. 친환경 범씨 소득 연시회는 벼 키다리병, 도열병 등 종자를 통해 전염되는 병해충의 사전 예방과 소득 요령을 알리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연시회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쌀 적정생산 3저3고 실천운동,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소개, 범씨 소득법·소득 과정별 주의사항 설명,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또 저비용 종자소득 기술인 온탕침범과 석회유황 체계처리 소득법을 결합한 친환경 범씨 소득법을 설명하고 현장 연시를 실시했다. 친환경 범씨 소득법은 키다리병 등 방제효과가 99%로 약제 저항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비용도 일반관행 종자소득약 대비 49%를 절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범씨 소득은 벼농사 중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범씨 전염으로 발생하는 각종 병은 철저한 종자소득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강진노인대학 팔순 기념잔치

강진노인대학은 최근 팔순을 맞은 12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기념잔치를 열었다. 박종득 지회장은 "강진노인대학이 개교한 이래 합동 생일잔치는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

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일상을 받은 윤수자 어르신은 "학우들이 생일을 축하해주니 기쁨이 배가 된 것 같아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영암 신복면민의 날 행사

영암군 신복면은 최근 신복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민민과 향우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신복면민의 날 및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최흥섭 면장은 "신복면은 충효와

예절이 살아 있고 활력이 넘치는 고향"이라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고 잘 다듬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강진 위생실천 다짐대회

강진군은 최근 강진아트홀에서 일 반음식점 영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영업자 위생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한식당 윤가명가 오너셰프 윤경숙 대표를 초청해

자신의 운영방침, 스토리 등을 전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위생법해설·농수산물 원산지 교육 등도 실시됐다. /강진=한태선 기자